

우간다 작물가공 자원화설비를 통한

시어산업 가치사슬 강화 사업

최근 화장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시어버터의 주요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버터의 활용에 대한 낮은 경제적 인식과 산업기반을 가진 우간다. 우간다 현지에 대규모 최신 가공설비공장을 설립하고 시어 가치사슬 교육을 통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가치 사슬의 핵심 주체인 여성들에게 경제 인식 및 품질교육을 제공하고, 시어버터 가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사업 개요

사업명	우간다 현지에 시어 가치사슬 구축을 통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사업기간/사업비	2018 - 2023 / 약 3,603백만원
사업대상지	우간다 (굴루, 리라, 나카송골라)
파트너 기관	라운즈, 재단법인 서현
사업목적	· 우간다 현지의 시어열매 주 생산자인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시어버터 제조설비 구축을 통한 농촌 지역 가치사슬 강화
주요 활동	· 시어열매 여성 생산자 협동조합 육성 및 역량 강화 · 우간다 현지 내 시어버터 가공 설비 구축 · 시어열매 가공품 생산 후 남은 부산물 활용 비료 제조

파트너기관 소개

LaonZ



(주)라운즈는 IC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장비 및 S/W 플랫폼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바이오 사업분부를 신설하여 현장형 바이오 소재 개발사업, 의료진단기기, 진단카드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서현은 2013년 현지에 설립되어 지하수 개발 장비 지원, 우간다 상록농업대학교 건립 지원 등 농업기술이전 및 우간다 농촌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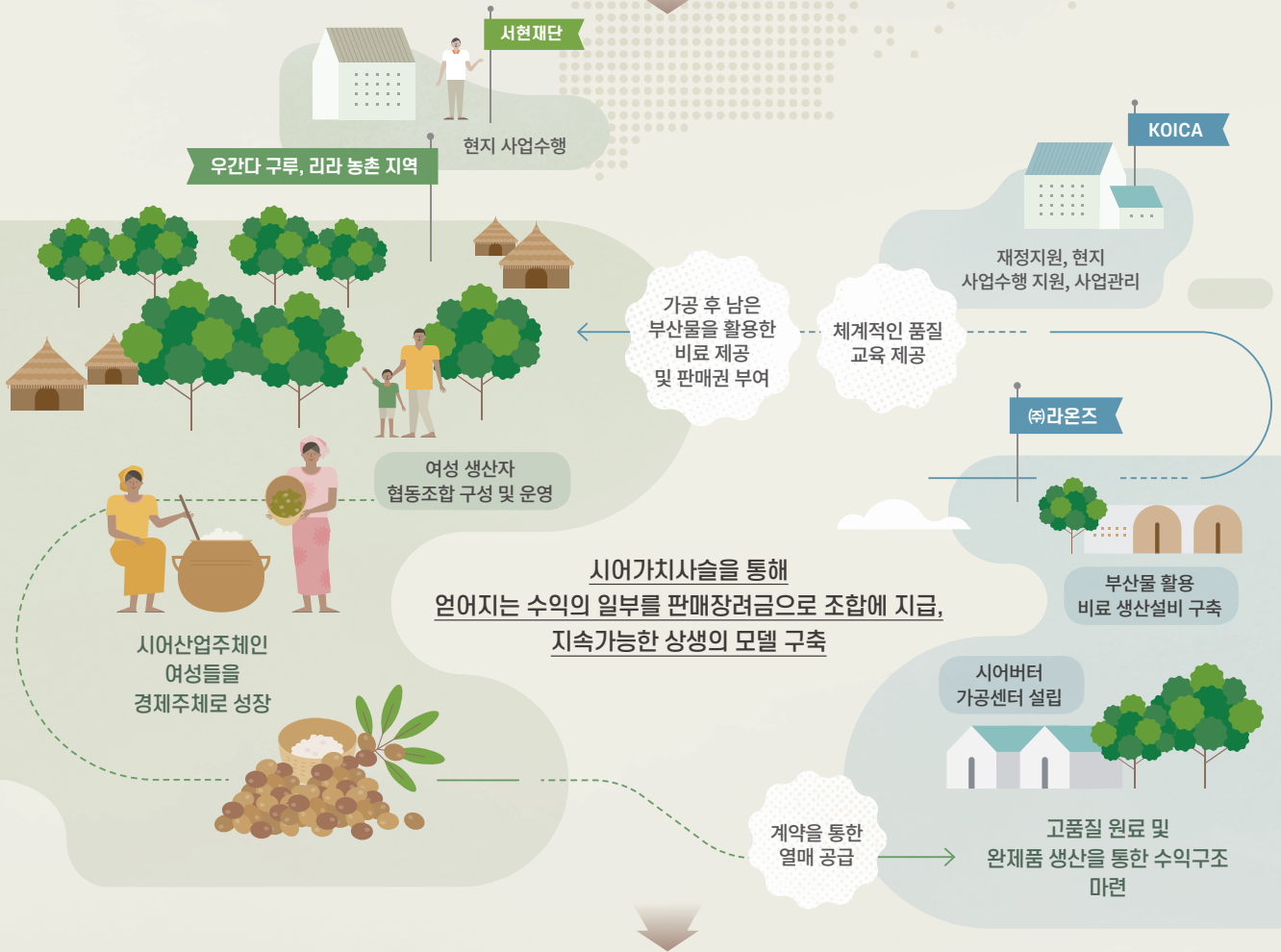
UGANDA

PROBLEM | 시어버터의 활용에 대한 낮은 경제적 인식과 산업기반

❶ 시어버터에 대한 경제적 인식 부족

❷ 수작업 위주의 시어버터 가공으로 낮은 생산량

❸ 시어열매 채집능가의 낮은 소득



IMPACT | 시어 가치사슬구축을 통한 농민생산자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❶ 6개 여성생산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으로 생산량 증대

0kg → 20,000kg
조합원수 750명

❷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제공을 통해 농가 생산량 증가

\$0 → \$80,000

❸ 대용량 시어버터 가공센터 건립

